

《오빠는 풍각쟁이야》 깊이 읽기

대중가요와 대중의 정체성 해명 '대중가요에 대한 구애 아닌 소통'

글_ 박애경 연세대학교 국문과 강사

《오빠는 풍각쟁이야》는 익살맞은 가사가 가수 박항림의 양중맞은 창법과 어우러진 1930년대의 대중가요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노래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 비로서 세월의 먼지를 떨 수 있었다. 망각, 미상, 오류로 점철되어 온 이 노래의 운명은 집단적 망각과 오해의 대상이 되었던 초기 대중가요의 운명과 닮아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향유되었던 대중가요는 그동안 '노인들이나 아는 흘러간 노래' 혹은 '식민성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왜색 노래'라는 따가운 눈길을 받으며 잊혀지거나, 잊혀지기를 강요당해 왔다. 일차 자료의 산재, 상당수 대중가요 작가의 남북과 월북으로 인한 가요사의 공백, 가수의 요절은 고스란히 연구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 대중가요의 실상에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히 흠어진 자료의 조각을 모아 그 시절 노래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집단적 기억을 발굴하고 해석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빠는 풍각쟁이야》는 대중가요를 향한 저자의 오랜 열병의 결과이자 '망각과의 지리한 싸움'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꼼꼼한 자료 읽기

이 책의 미덕은 대중가요의 현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 기원을 철저히 탐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대중가요의 기원을 찾기 위해 저자는 유행기 음반 가사, 당시의 신문, 잡지 기사 등 일차 자료를 광범위하게 참고하고,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시대정신을 해명하여 그 시기 대중가요상을 재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간 '대중가요에 대한 기본적 서지 사항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문학도의 통찰이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시기의 삶과 문화의 총체라 할 수 있는 대중가요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대중가요를 향유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초기 대중가요를 대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거나, 불가피하게 비껴왔다는 것이 온당한 평가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일차 자료가 산만하게 흠어진 연구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는 그 실상을 보기 이전에 생각이 먼저 앞서가곤 하였던"(17쪽) 관행이 초기 대중가요의 실상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초기 대중가요에 대한 접근은 문화제국주의론적인 시각 즉 '일제의 간악한 문화 정책에 복무하여, 대중에게 거짓 위안을 선사한, 출발부터 잘못된 식민 문화'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부족과 일차 자료의 미비를 시각의 올바름으로 극복하려 했던 초기 연구자들의 열정이 개입된 결과였다.

꼼꼼한 자료 읽기는 의지와 시각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초기 대중가요의 실상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대중가요의 지형도를 복원하는 이러한 작업은 대중가요의 달라진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온당한 현실 인식을 가로 막는 위무의 도구이자, 소모품 정도로 취급 받아왔던 대중가요는 1990년대를 거치며, 진지한 비평의 대상, 학제 간 연구의 대상으로 그 지위가 급격히 격상되었다. 여기에 근대를 촘촘히 바라보는 일상사, 풍속사의 연구성과가 쌓이면서,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시기 대중들의 삶의 단면이 조금씩 재구되기 시작했다. 저자의 고백처럼 음반 가사지와 음반 총 목록 등 일차 자료의 꾸준한 수집과 정리 역시 대중가요 연구를 위한 호조건이 되었다. 따

라서 실증 자료를 통해 대중가요와 대중의 정체성을 해명하려 했던 이 책은 대중가요에 대해 한결 너그러워진 현 단계 지적 풍토를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식과 자생의 이분법 넘어 대중가요 바라보기

대중가요 시작과 기원을 바라보는 기존 입장은 크게 이식론과 자생론, 두 갈래로 나뉘 볼 수 있다. 이식론자들이 주로 자본과 테크놀로지, 창가 등 새로운 양식의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가요의 기원을 논했다면, 자생론자들은 조선 후기 서민의 하위문화인 잡가에서 근대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것이 곧 대중가요의 초기 형태였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이식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대중문화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는 한결같이 자본과 양식의 도입을 주도한 일제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반면, 자생론자들은 대중문화의 싹을 조선 후기 문화에서 찾고, 이 시기에 이미 대중문화의 형태가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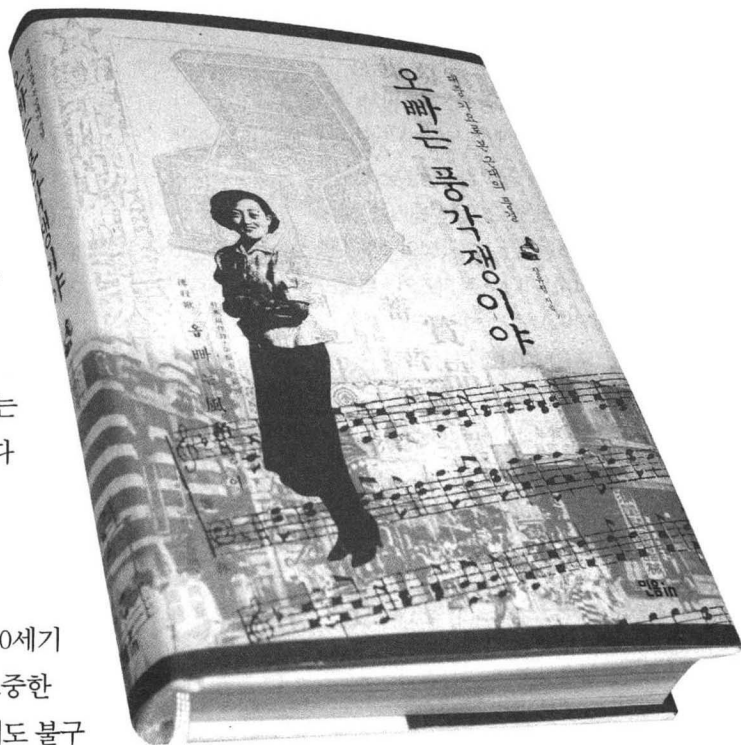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 '이식과 자생의 경계境界를 넘기 위해 이식과 자생이라는 용어를 경계警戒하고자 한다'고 하였다.(26쪽) 이 태도는 대중가요의 의미를 짚고, 대중가요의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2장에 좀더 예각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근대 이후 대중매체에 실려 전하는 서민의 노래'를 광의의 대중가요로, '작사자와 작곡자가 가수에게 부르게 할 요량으로 새롭게 창작한 노래'를 협의의 대중가요로 구분한다거나(74~76쪽) 잡가와 같이 전 근대 시기에 형성되어, 근대 대중매체에 담긴 노래를 전통가요로 설정하여, 협의의 대중가요와 구분했던 것은 이러한 태도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식과 자생의 양분법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전통에 대한 저자의 오랜 애정을 보여준다거나, 음반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대중가요의 형성 과정을 통해 문화란 전통과 이입된 요소 간의 끊임없는 혼효와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한결 풍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대중가요, 끝나지 않은 구애

이 책은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왔던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한 소중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전반기 대

중가요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중 정서의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려 했던 4장은 보는 이에 따라 충분히 이견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차이조차도 대중가요 실체에 대한 실증적 접근과 문학적 접근 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쌓이면서 점차 좁혀질 수 있으리라 믿어 본다. 이 책은 대중가요에 대한 구애의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이고, 대중가요에 대해 애정을 지닌 더 많은 이들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작업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오빠는 풍각쟁이야》가 '대중가요는 대중가요'라는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민**



장유정 지음 | 민음in | 436쪽 | 값 22,000원